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5, pp. 311-318
<https://doi.org/10.29212/mh.2022..125.31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교육소개] 군사(軍史)업무 실무자 대상 직무교육

이미숙*, 김드보라, 홍석조

1. 군사(軍史)업무실무자 대상 직무교육 추진
2. 소감문(2022-1차): 기억 그 이상의 기록(대위 김드보라)
3. 소감문(2022-2차): 국방업무기록이 국방역사(대령(진) 홍석조)

1. 군사(軍史)업무실무자 대상 직무교육 추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장 이성춘)는 2021년 ‘군사(軍史)업무 실무자과정’을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으로 신규 편성해 모든 기관(부대)의 부대사 및 정기역사서 작성 담당자 25명 내외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 정기역사 작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에서 실시

*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부 선임연구원

되는 이 교육에는 국방부와 합참을 비롯해 국직기관(부대), 각군의 군사(軍史)업무 담당자이자 국방 정기역사 작성 실무자인 군인, 군무원,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국방역사 특히 국방부사(國防部史)와 부대사(部隊史) 작성 관련 실무자과정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2021년에 소요를 제기해 신설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전반기 교육만 개최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2년 차인 금년에는 2021년 군사업무실무자 직무교육 경험과 교육생 설문결과를 토대로 교육과목, 교육방법, 강사진 등을 대폭 개선하여 전·후반기 2개 기수를 모두 추진하였다.

2022-1차(전반기)에는 교육과목을 각 기관 역사, 부대사 실무, 부대 상보 및 계보 작성 등으로 세분화하고, 국방부 및 각군 군사 연구편찬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담당자를 강사로 초청하여 교육내용을 실무자들의 요구와 눈높이 맞도록 보완하였다. 교육방법도 통합 강의에서 국방부·합참(국직),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분임별 강의 및 토의식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학습효과를 제고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취소되었던 현장견학을 육군기록정보관리단, 육군군사연구소, 해·공군역사기록관리단 등 군사업무 실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실습해보는 실무형으로 구성하였다. 총 24명이 수료하였다.

1일 차에는 이성춘 군사편찬연구소장이 [국방역사의 변천과정] 강의를 통해 국방역사를 소개하면서 기초자료 수집과 공정한 역사서 집필이 군사업무 담당자들의 필수임무임을 강조하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하고 소명의식을 갖도록 독려했다. 2일 차 오전에는 국방부·합참(국직),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5개 조 분임별로 전문강사들이 [각 기관 역사 및 연구편찬 현황], [부대사 실무], [부대상보/계보 작성]을 강의한 후 토의 및 실습

을 병행했다. 2일 차 오후에는 군 역사편찬 및 기록 기관을 견학했다. 3일 차에는 군사편찬연구소 이미숙 박사와 최정준 박사가 [기록관리와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국방 정기역사서 작성 및 절차] 강의를 통해 자료의 생산부터 작성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유용한 실무 지식과 경험을 소개했다.

2022-2차(후반기)에는 실무자들의 업무 적합도 및 활용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32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지난 기수에 비해 국방부, 국직기관(부대)의 군사업무실무자들이 다수 참가하였다. 이번부터는 국방 정기역사의 주요 대상기관인 국방부와 국직기관(부대) 군사업무실무자들에 집중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였다.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하고, 대통령 기록관을 심층 견학하는 등 실무자들의 요구와 눈높이를 정부 차원으로 높였다.

1일 차에는 군사편찬연구소 최정준 박사가 [국방 정기역사서 작성 절차] 강의를 통해 자료의 생산부터 작성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유용한 작성절차 관련 지식과 요령을 소개했다. 2일 차 오전에는 국가기록원 조이현 기록협력과장이 [현대사와 군대, 군과 기록]을 강의한 후 국방 정기역사서의 작성 실태에 대한 분석토의를 병행했다. 2일 차 오후에는 세종시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여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는 대통령의 기록과 역사를 심층 견학했다. 교육 마지막 날인 3일 차 1교시에는 군사편찬연구소 이미숙 박사가 [기록관리와 효율적인 자료수집] 강의를 통해 다년간의 국방역사 집필경험에서 얻은 자료수집 노하우(know-how)를 소개했다. 2~3교시에는 이성춘 군사편찬연구소장이 [국방역사 연구편찬의 중요성] 강의를 통해 기초자료 수집과 공정한 역사서 집필이 군사업무 담당자들의 필수임무임을 강조하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

하고 소명의식을 갖도록 독려했다.

군사업무 실무자과정 직무교육은 군사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들에게 국방 정기역사 및 부대사 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감대를 형성시킴은 물론 창의적인 실무자세를 견지하도록 함으로써 군사사 연구편찬의 기반체계를 강화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1차 사료 작성의 실무자인 군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전문적인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 추진할 예정이다.

<군사(軍史)업무 실무자 과정>



2. 소감문(2022-1차) : 기억 그 이상의 기록 (대위 김드보라)

<국군재정관리단 대위 김드보라>



나는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주관한 ‘군사(軍史)업무 실무자과정 직무교육’을 다녀왔다.

부대에서 부대사 작성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단순히 문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부대사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절감했기에 교육계획을 접하자마자 바로 교육을 신청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교육 1일 차엔 국방역사의 변천 과정 전반에 대한 교육이 진행

되었고, 2일 차엔 군별로 조를 편성하여 전문강사분들이 해당 군의 역사 및 연구편찬 현황과 부대사 실무, 부대 상보 및 계보 작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주셨다. 특별히 2일 차 오후엔 각 군 역사편찬 및 기록 기관을 방문함으로써 각 군의 역사와 기록관리 방법 등에 대해 살아있는 이론 및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 날인 3일 차엔 기록관리와 효율적인 자료수집, 국방정기역사서 작성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특히 자료수집에 관한 교육에선 우리가 각종 임무를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

는 실질적인 자료수집 노하우와 참고 사이트에 대해서도 알게됨으로써 자료수집의 시각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강사와 전문적인 내용으로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역량이 증진된 것은 물론이지만, 교육을 통해 새로이 마주한 것이 있다면 ‘기록에 대한 자아 성찰’이었다. 이론 및 실무를 통해서 머리엔 ‘기록의 중요성’을 입력하고, 각 군의 기록관리 기관 견학을 통해 눈에는 ‘기록의 실체’를 담아오며 자아 성찰은 극대화되었다. 이렇게 교육을 통해 얻은 ‘기록의 중요성과 실체’는 내가 어떤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지시켜주는 느낌이었다. 어떤 한 사건을 ‘기억’만 한다면 그 사건은 사적인 일이 되지만, ‘기록’을 한다면 공적인 일이 된다는 것 즉, 기록을 통해 한 사건이 나의 역사가 아닌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됨을 알면서도 망각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나름대로 부대사에 대한 책임감과 중요성을 인지하며 부대사를 작성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단지 행정적인 책임감과 중요성이 아니었나 싶다. 진정으로 우리 모두의 역사가 기록되어야 한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부대사를 작성해갔다면 한 해 부대사를 완성했다는 수고보단 기쁨이 더욱 가득했을 것 같다.

그리고 교육은 지식 전달과 역량 증진이 주된 목적이지만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교육은 성찰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을 오랜만에 깨달았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부대사 담당자들이 이 교육에 참석하여 기록의 중요성과 실체를 직접 마주함으로써 부대사가 우리 모두의 역사임을 인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3. 소감문(2022-2차) : 국방업무기록이 국방역사 (대령(진) 홍석조)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대령(진) 홍석조>



나는 군사업무담당자로서 국방 정기역사 작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에서 군사업무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다녀왔다.

이번 직무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1일 차에는 ‘국방 정기역사서 작성절차’에 대해 군사편찬연구소 최정준 선임연구원으로부터 군사역사의 개념과 국방역사서 편찬의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소개받았다. 2일 차에는 ‘현대사와 군대,

軍과 기록’에 대해 국가기록원 조이현 기록협력과장으로부터 軍의 역사 및 기록 등을 소개받았다. 오후에는 ‘대통령기록관 견학’을 통해 역대 대통령들의 모든 기록들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3일 차에는 ‘기록관리와 효율적인 자료수집’, ‘국방역사의 변천과정’에 대해 군사편찬연구소 이미숙 선임연구원과 이성춘 연구소장님의 강의를 끝으로 직무교육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느낀 점은 첫째, 국방 정기역사서에 대

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기록한 만큼 역사가 된다’는 의미가 평소 나의 업무자세를 되돌아보게 하였다. 내가 수행한 업무 또한 기록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개관적이며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고 기록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둘째, 국방역사서 편찬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부대사 작성시 6하 원칙을 준수하는지, 불필요한 형용사나 부사를 과다하게 사용하는지, 가독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장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겠다. 마지막으로 나에 대한 기록도 소중히 해야겠다. 수 개월간 일기와 5감사도 작성했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지금은 수년째 사진으로 남긴 기록을 보며 과거를 회상하곤 한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나의 역사도 소중히 다룰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겠다.

E.H Carr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은 누구에게든 널리 회자 되어온 말이다. “선명한 기억보다 흐릿한 연필자국이 낫다”는 교수님의 말씀처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군사업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으며, 이를 통해 자료수집 또한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는 군사업무 실무자뿐만 아니라 초·고급간부 교육과정에도 ‘국방 정기역사 작성 절차’ 과목이 확대되어 개인의 역량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